

주요개념 : 모유량 부족증후, 잠재요인

## 모유량 부족증후군의 잠재요인 분석\* (Potential Indicators of 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

김 해 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화를 위한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간호행위를 하기 보다는 과학적인 근거하에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모유수유는 세계의 모든 문화권, 특히 선진국에서 영유아 영양공급을 위해 전통적으로 전수되는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개발도상국의 경향과 유사하게 급속도로 저하되어 가는 추세이다.

현재 병원의 일반적 규칙(모자동실제 폐지 등), 사회적 요인, 모유수유방법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부족, 가족과 친지에 의한 격려 부족, 그리고 대량생산되는 인공유의 적극적인 보급 등이 모유수유를 억제시키고 있다.

198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모유수유 실천율은 전체 수유부의 35.4%에 불과하고, 모유수유를 실천하지 못하거나 조기에 중단한 산모의 20-40% 정도가 모유량이 부족하여 수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모유수유했던 수유부 중 25%-30%가 1개월 이내에 모유수유를 중단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Martinez & Krieger, 1985; Wright & Walker, 1983).

김 모임(198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분만전 임신부의 83.6%가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나 실천율은 불과 23%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나 지속시키지 못했던 산모들 중 60.1%는 병원측의 기피박탈이라고 하였으며 39.7%는 모유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나 모유부족 등이 모유수유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것의 분비는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이고 적절한 교육과 관리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인 모유량 부족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직접, 간접 요인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법으로 수유부들이 모유수유를 계획하여 지속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모유수유 실태조사에 국한된 것이었으므로 개념적 틀을 사용하여 모유량 부족증후군과 그렇지 않은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파악하여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1992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함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모유량 부족증후(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를 가진 수유부와 그렇지 않은 수유부(Non-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 사이에 구별되어지는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모유분비량에 영향을 주는 간접요인을 파악한다.
- 2) 모유분비량에 영향을 주는 직접요인을 파악한다.
- 3) 모유량부족과 모유분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의 대상이 1개 종합병원에 국한되어 표본이 임의추출로 수집, 분석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2) 연구도구가 외국의 것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 4. 용어정의

모유부족증후 산부(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 :

산욕 4주 이상-17주 미만인 산부로 출산전 모유수유를 계획하여 첫 수유방법으로 모유수유를 하였으나 모유량 부족으로 현재 중단하고 인공수유를 하고 있는 산부를 말하며 이하 IMS로 사용한다.

모유충분증후 산부(Non-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 :

산욕 4주 이상-17주 미만인 산부로 출산전 모유수유를 계획하여 출산이후 현재까지 계속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부를 말하며 이하 Non-IMS로 사용한다.

## II. 문헌고찰

모유량부족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어머니로부터 보고된 모유수유를 종결시키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이다(Gussler & Briesemeiser, 1980 ; Park, 1992). 박 옥희(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유수유 실패이유로는 산전 예방간호를 받은 실험군의 66.7%, 예방간호를 받지 않은 대조군의 30.4%에서 유즙량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김 화숙(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유수유부의 수유중단 이유는 모유량 부족이 45.0%로 가장 높았고 정 귀영(1983)의 41.4%, 홍 우식(1982)의 59.0%, 김 모임(1984)의 66.0% 등으로 분만전 상당수의 임부가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유실천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김 혜자(1985)는 모유수유율이 69.7%이고 모유수유에 실패한 산모의 1/4 이상이 모유부족이었다고 하였다.

그의 7개의 서술적 연구에 의하면 병원에서의 인공분유의 보충수유가 역시 단기간의 모유수유와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iff & Essockvital, 1985 ; Samuels et al., 1985 ; Starling et al., 1979).

한편, 미국의 경우 모유수유를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어머니는 1982년 이래 감소추세에 있다. 모유수유실천율도 중요하지만 모유수유 지속기간 또한 매우 중요한데, 문헌에 의하면 출생에서 8주 사이 산욕기간이 모유수유 중단의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였다(Brogan & Fox, 1984 ; Goodine & Fried, 1984 ; Hill, 1987, 1988 ; Loughlin et al., 1985).

Mogan(1986)은 78명의 수유부를 대상으로 분만후 55-77시간에 방문하여 면접한 결과 주된 걱정거리는 수유방법, 신생아 수면과 유두 및 유방동통이었고 산욕 2개월의 수유율은 83%인데 비하여 4개월에는 68%로 수유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78명의 면담자 중 2주 후에 25명의 어머니가 모유량이 부족하여 염려하거나 젖이 뭍은 것 같다고 표현하였고 1개월 후에는 57명의 어머니 중 31명이 여전히 모유량이 적다고 인식하였으며 2개월째에도 모유량 부족이 주걱정거리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의하면 수유를 빨리 시작한 것이 수유기간, 특히 분만후 첫 2주의 모유수유실천에 성공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Lynch 등(1986)의 연구에서는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어머니 나이, 교육정도, 수유하기로 결정한 시기, 의도한 수유기간, 첫 수유시 신생아 나이가 의미있는 독립변수로 나타났고 산전진찰 여부,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 및 장기수유계획이 장기간 모유수유를 이행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Feinstein, Berkelhamer, Gruszka, Wong & Carey, 1986 ; Starling, Ferguson, Horwood & Taylor, 1979 ; Wright & Walker, 1983).

많은 문헌에서 산욕 4주에서 8주 동안에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이유로 인지된 모유량부족을 제시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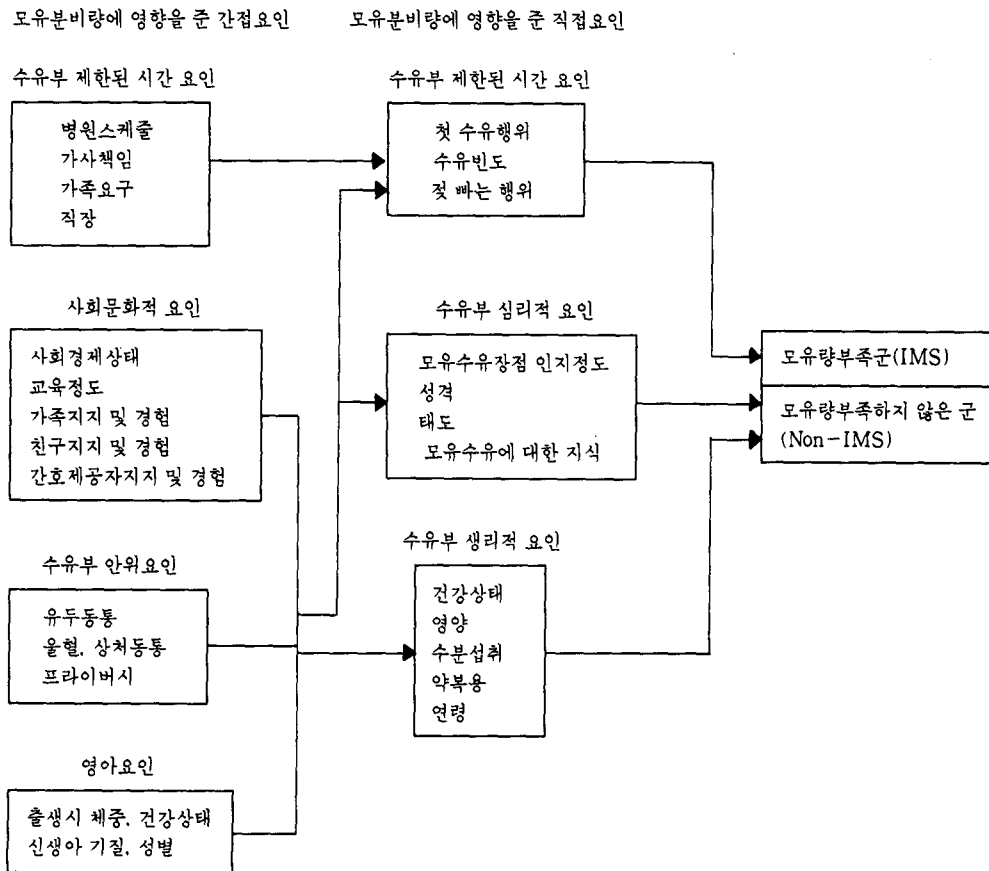
(Beven, Mosley, Lobach & Solimano, 1984 : Gunn, 1984 : Hawkins, Nichols & Tanner, 1987 : Hill, 1987 : Holt & Wolkind, 1983 : Quickfall, 1979) 아기의 체중증가를 위하여 아기가 만족할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산부가 모유량 부족이라고 인지하는 요인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Bloom, Goldbloom, Robinson & Stevens, 1982 : Sacks, Brada, Hill, Barton & Harland, 1976 : Yeung, Murray, Pennell, Leung & Hall, 1981 : Page-Goertz, 1989).

또한 Cronenwett 등(1987)은 모유수유지속은 보호자, 가족 및 친구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분만후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모유수유실천율에 영향을 주고 (Dusdieker, Booth,

Seals & Ekwo, 1985 : Humenick & Van Steenkiste, 1983 : Loughlin et al., 1985) 불유쾌한 분만경험과 조기모유수유시도 또한 장기모유수유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Entwisle et al., 1982 : Hewat & Ellis, 1984 : Jones, 1986).

한편 최 순옥(1987)은 산전 모유수유계획은 산전 모유수유교육과 유방간호로 모유수유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김 화숙(1991)의 연구에 의하면 모유에 대한 정보습득은 전체 대상자의 68.9%가 육아책이나 잡지에서, 9.4%가 의료인에게서 얻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유수유군이 인공수유군보다 조기수유계획, 분만후 유방맛사지, 수유시 마음의 안정분야에서 통계

잠재인자(Potential Determinants)



<그림 1> 개념적 기틀

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는 간호가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모유수유를 계획했던 산부들이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원인은 유방관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임신기간과 분만 후에 유방관리를 잘못했거나 임신기간이나 분만 후의 부적절한 휴식과 수면 및 영양관리,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산부의 신념이나 의지 및 경험부족, 주위의 지지결여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Weinstein(1980)도 모유수유실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모유량 부족, 수유에 대한 확신 및 교육의 부족을 보고하였고 Creery(1973)는 모유와 분유의 큰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모유수유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문헌고찰에 의하면 모유량부족이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로 고찰되었다. 이에 Hill과 Humenick(1989)에 의해 고안된 모유부족증후의 개념적 기틀을 기반으로 수유부의 모유생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직접요인으로는 ①모유수유행위 ②수유부 심리적 요인 및 ③수유부 생리적 요인을 포함하였고 간접요인으로는 ①수유부 제한된 시간요인 ②사회문화적 요인 ③수유부 안위요인 및 ④영아요인을 포함하여 개념적 기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모유부족증후군(IMS)과 그렇지 않은 군(Non-IMS)사이의 잠재인자를 분석하는 서술적인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유의표출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서울의 일개 종합병원에서 편의표출하였다.

#### 2. 연구대상

서울시내 일개 종합병원 육아상담실에 1993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생후 4주

-17주까지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담하였다. 총 대상자수는 91명으로 모유수유군(Non-IMS) 52명과 인공수유군(IMS)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모유수유를 계획하여 신생아에게 첫 수유방법으로 모유수유를 한 산부
- 2) 모유수유를 계속하고 있는 산부와 모유량 부족으로 현재 인공수유를 하는 산부

#### 3. 자료수집도구

연구도구는 Hill과 Aldag(1991)가 사용한 도구를 번역한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문헌고찰과 경험에 의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그후 Pilot study를 한 후 다시 수정보완하였고 전체 문항수는 119 문항으로 7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종합병원 간호부장과 해당 간호부서인 육아상담소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명이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3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 5. 자료분석

분석은 SPSS/PC<sup>+</sup>를 사용하였고 일차적 자료분석은 기본통계를 이용하였다.

명명척도와 서열척도의 일반적 변수는  $\chi^2$ 와 Wilcoxon Rank Sum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구간척도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다.

변수들은 IMS 및 Non-IMS 변수의 일변량 상관계수(Univariate Correlation)에 기초하여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을 한 후 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여 변수분석을 하였고 Kaiser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적 중용을 산출하였으며 Cross Validation에 의하여 오류율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토의

1. 두 군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91명의 대상자 중 42.9%(N=39)가 모유량부족증후(IMS)로 인하여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IMS군의 연령은 29.6세로 나타났고, Non-IMS군의 연령은 30.0세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49, p=.619$ ).

자녀수는 IMS군이 1.2명인 반면 Non-IMS군은 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58, p=.012$ ).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IMS군에서 8명(26.7%), Non-IMS군에서 22명(73.3%)을 차지하였고 대학교육 이상이 IMS 군에서 31명(50.8%), Non-IMS군에서 30명(49.2%)을 차지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공수유를 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chi^2=4.79, p=.029$ ).

직업유무를 보면 IMS군에서 12명(60.0%)이, Non-IMS군에서는 8명(40.0%)이 직업이 있었고 직업이 없는 대상자는 IMS군에서 27명(38.0%), 반면 Non-IMS군에서는 44명(62.0%)을 차지하여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chi^2=3.08, p=0.79$ ) 월수입도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chi^2=4.17, p=.244$ ).

분단방법으로는 정상질분만이 IMS군에서 28명(44.4%), Non-IMS 군에서 35명(55.6%)이었고 제왕절개분만은 IMS군에서 11명(40.7%), Non-IMS군에서 16명(59.3%)으로 나타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0.11, p=.745$ ).

2. 모유부족 증후군과 관련된 잠재인자

Kaiser-Meyer-Olkin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 적중율을 산출하였는데 표본적중율은 72.4%로 나타났다 Cross Validation에 의한 분석오류율은 17.3%로 비교

〈표 1〉 IMS군과 Non-IMS군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비교

(Comparison of sociodemographic factors between IMS and Non-IMS mothers)

변수	IMS (N=39)	Non-IMS (N=52)	T or $\chi^2$ test	p
연령	29.6	30.0	.49	.619
자녀수	1.2	1.5	2.58	.012*
교육정도				
고졸 이하	8(26.7%)	22(73.3 %)	4.79	.029*
고졸 이상	31(50.8%)	30(49.2 %)		
직업				
유	12(60.0 %)	8(40.0 %)	3.08	.079
무	27(38.0%)	44(62.0 %)		
월수입				
100만원 이하	5(27.8%)	13(72.2 %)	4.17	.244
100-150만원	18(40.0 %)	72(60.0 %)		
150-200만원	7(58.3%)	5(41.7 %)		
200만원 이상	9(56.3%)	7(43.8 %)		
분단방법				
질분만	28(44.4 %)	35(55.6 %)	0.11	.745
제왕절개분만	11(40.7%)	16(59.3 %)		

〈표 2〉 모유부족증후와 관련된 변수측정

IMS 변수와의 상관계수	항목
잠재인자(Potential Determinants)	
요인 1-어머니의 심리요인	
.483 FORMULA	현재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지 (1)예 (2)아니오
-.292 AMTFOR	산욕 8주 동안 아기가 하루에 먹는 분유량 _____ cc
.233 FEIMS	모유량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지 (1)예 (2)아니오
.374 SUPP	퇴원 후 8주 이내 인공수유 유무 (1)예 (2)아니오
.361 INTENT	임신시 의도한 수유계획 기간 _____ 주
.684 CONFIDENCE	모유수유 성공정도에 대한 생각 (1)전혀 성공아니다 (2)약간 성공 (3) 그저 그렇다 (4) 성공적 (5) 매우 성공
.389 FEAMTBR	수유중 모유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1)예 (2)아니오
요인 2-사회문화적 요인	
.248 SUCCMOM	성공적 경험이 있는 주위사람의 정서적 지지 유무 (1)전혀없음 (2)가끔있음 (3)보통 (4)자주 (5)매우자주
.238 EXPFRI	친구나 친척 등 경험자와 대화 (1)전혀 없음 (2)가끔 있음 (3)보통 (4)자주 (5)매우 자주
.217 INFEXPER	친구, 친척경험자로부터 얻은 정보 (1)없음 (2)분단전 (3)분단후 (4)분단전후
.230 INFORMED	분단전 얻은 정보의 양 (1)아무정보도 없음 (2)극소의 정보 (3)다소의 정보 (4)충분한 정보
요인 3-모유수유행위 요인	
-.227 PREBEXP	모유수유경험-첫 아 이 (1)예 (2)아니오 기간 _____ 주 성공여부 (1)예 (2)아니오 둘째아이 (1)예 (2)아니오 기간 _____ 주 성공여부 (1)예 (2)아니오
.541 BRDUR	생후 몇주까지 모유수유했는지 _____ 주
.368 PCONFIDENCE	수유에 대한 자신감 정도 (1)매우걱정 (2)약간걱정 (3)보통 (4)자신있다 (5)매우자신
요인 4-수유했수 요인	
.312 NUMBR 1ST	분단후 1주의 1일 모유수유했수 _____ 회
.547 NUMBR 2-8	분단후 2-8주의 1일 모유수유했수 _____ 회
요인 5-사회지지 요인	
.284 MOMSUPP	친정 어머니의 영향 (1)많은 좌절 (2)약간 좌절 (3)그저 그렇다 (4)약간 도움 (5)많은 도움 (6)무관
.348 DADSUPP	남편의 영향 (1)많은 좌절 (2)약간 좌절 (3)그저 그렇다 (4)약간 도움 (5)많은 도움 (6)무관
.242 NUMCHILD	자녀수 남 _____ 명 여 _____ 명
요인 6-교육정도 및 사전준비 정도	
-.229 MOMEDU	교육정도 (1)국졸 (2)중졸 (3)고졸 (4)대졸
.213 PRENIPR	유방관리(유두잡아당기기) (1)예 (2)아니오
요인 7-신체 및 형제지지 요인	
-.230 LEAKING	젖이 흘러나오는 문제 유무 (1)예 (2)아니오
.178 SUPPSI	언니나 여동생의 영향 (1)많은 좌절 (2)약간 좌절 (3)그저 그렇다 (4)약간 도움 (5)많은 도움 (6)무관
요인 8-어머니의 자신감 요인	
.265 BELIEF	동일 조건하에서 모유수유가 다른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1)전혀 아니다 (2)약간 아니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
.235 MOMINDIS	시아머니의 영향 (1)많은 좌절 (2)약간 좌절 (3)그저 그렇다 (4)약간 도움 (5)많은 도움 (6)무관
요인 9-어머니의 신체적, 물리적 요인	
-.233 BRENG	유방울혈문제 유무 (1)예 (2)아니오
-.254 PRIVACY	모유수유시 남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문제 유무 (1)예 (2)아니오

<표 3> IMS 개념틀에 준거한 변수측정

IMS 변수와의 상관계수	항목
	잠재인자(Potential Determinants)
요인 1-어머니의 심리요인	
.361 INTENT	임신시 의도한 수유계획 기간 ____ 주
.684 CONFIDENCE	모유수유 성공정도에 대한 생각 (1)전혀 성공아니다 (2)약간 성공 (3)그저 그렇다 (4)성공적 (5)매우 성공
.389 FEAMTBR	수유중 모유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1)예 (2)아니오
.217 INFEXPFR	친구, 친척경험자로부터 얻은 정보 (1)없음 (2)분만전 (3)분만후 (4)분만전후
.230 INFORMED	분만전 얻은 정보의 양 (1)아무정보도 없음 (2)극소의 정보 (3)다소의 정보 (4)충분한 정보
.368 PCONFIDENCE	수유에 대한 자신감 정도 (1)매우 걱정 (2)약간 걱정 (3)보통 (4)자신 있다 (5)매우 자신 있다.
.265 BELIEF	동일조건하에서 모유수유가 다른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1)전혀 아니다 (2)약간 아니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요인 2-사회문화적 요인	
.248 SUCCMON	친정 어머니의 영향 (1)많은 좌절 (2)약간 좌절 (3)그저 그렇다 (4)약간 도움 (5)많은 도움 (6)무관
.238 EXPFRI	친구나 친척 등 경험자와 대화 (1)전혀 없음 (2)가끔 있음 (3)보통 (4)자주 있음 (5)매우 자주 있음
-.227 PREBEXP	모유수유경험-첫 아 이 (1)예 (2)아니오 기간 ____ 주 성공여부 (1)예 (2)아니오 둘째아이 (1)예 (2)아니오 기간 ____ 주 성공여부 (1)예 (2)아니오
.284 MOMSUPP	친정어머니의 영향 (1)많은 좌절 (2)약간 좌절 (3)그저 그렇다 (4)약간 도움 (5)많은 도움 (6)무관
.348 DADSUPP	남편의 영향 (1)많은 좌절 (2)약간 좌절 (3)그저 그렇다 (4)약간 도움 (5)많은 도움 (6)무관
.242 NUMCHILD	자녀수 남 ____ 명 여 ____ 명
-.229 MOMEDU	교육정도 (1)국졸 (2)중졸 (3)고졸 (4)대졸
.178 SUPPSI	언니나 여동생의 영향 (1)많은 좌절 (2)약간 좌절 (3)그저 그렇다 (4)약간 도움 (5)많은 도움 (6)무관
.235 MOMINDIS	시아머니의 영향 (1)많은 좌절 (2)약간 좌절 (3)그저 그렇다 (4)약간 도움 (5)많은 도움 (6)무관
요인 3-수유행위요인	
.483 FORMULA	현재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지 (1)예 (2)아니오
-.292 AMTFOR	산욕 8주동안 아기가 하루에 먹는 분유량 ____ cc
.233 FEIMS	모유량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지 (1)예 (2)아니오
.374 SUPP	퇴원후 8주 이내 인공수유 유무 (1)예 (2)아니오
.541 BRDUR	생후 몇주까지 모유수유했는지 ____ 주
.321 NUMBR 1ST	분만후 1주의 1일 모유수유 횟수 ____ 회
.547 NUMBR 2-8	분만후 2-8주의 1일 모유수유 횟수 ____ 회
.231 PRENIPR	유방관리(유두잡아당기기) (1)예 (2)아니오
요인 4-어머니의 안위 요인	
-.230 LEAKING	젖이 흘러나오는 문제 유무 (1)예 (2)아니오
-.233 BRENG	유방울혈문제 (1)예 (2)아니오
-.254 PRIVACY	모유수유시 남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문제 유무 (1)예 (2)아니오

적 낮아 바람직한 표본분류를 나타내었다.

Eigen value가 1이하인 잠재인자는 포함시키지 않고 분석된 변수간의 요인분석결과 71.2%를 설명할 수 있었다.

요인 1은 대상자의 심리적 요인, 요인 2는 사회문화적 요인, 요인 3은 모유수유 행위요인, 요인 4는 수유횟수 요인, 요인 5는 사회지지 요인, 요인 6은 교육정도 및 산전준비요인, 요인 7은 신체 및 지지요인, 요인 8은 어머니의 자신감 요인이고 요인 9는 어머니의 신체적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2).

IMS 개념적 틀에 준거한 잠재인자 범주를 사용하면 요인 1, 요인 8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에 속하고 요인 3, 4는 수유행위 요인, 요인 7, 9는 어머니의 안위 요인, 그리고 요인 2, 5, 6은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설

명될 수 있다(표 3).

이렇게 IMS 개념적 기틀에 의거한 모유량 부족증후와 관련변수를 측정하여 정리하면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의 9가지 요인은 IMS 개념틀의 요인상관계수와 논리적으로 해석된다.

IMS 잠재인자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요인 1은 20.04%, 요인 2는 10.11%, 요인 3은 7.91%, 요인 4는 6.21%, 요인 5는 5.45%, 요인 6은 4.86%, 요인 7은 4.44%, 요인 8은 4.16%, 그리고 요인 9는 3.94%로 IMS 잠재인자의 총 71.12%가 예측되는데 이는 IMS 대상자를 71.12%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표 4).

모유수유의 성공은 수유에 대한 지식이 관계가 있다고 했지만 모유수유는 복합적인 과정이므로 수유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생활스타일의 적응정도, 기

〈표 4〉 IMS 개념적 기틀에 대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of Determinants of IMS)

변 수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 of variance	20.04	10.11	7.91	6.21	5.45	4.86	4.44	4.16	3.94
FORMULA	.81								
AMTFOR	.77								
FEIMS	.77								
SUPP	.75								
INTENT	-.39								
CONFIDENCE	-.54		.51						
FEAMTBR	-.80								
SUCCMOM		.85							
EXPFRI		.82							
INFEXPFR		.80							
INFORMED		.59							
PREBREXP			.77						
BRDUR			.59						
PCONFIDENCE			.56						
NUMBR 1ST				.80					
NUMBR 2-8				.72					
MOMSUPP					.83				
DADSUPP					.72				
NUMCHILD					-.46				
MOMEDU						.65			
PRENIPR						.63			
LEAKING							.84		
SUPPSI							.40		
BELIEF								.67	
MOMINDIS								-.70	
BRENG									.79
PRIVACY									.66



대감 정도가 성공적인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Shepherd, 1982).

이 연구결과는 기초연구로 고려되어야 한다. IMS 개념모델을 사용하여 시도된 첫 연구로 IMS와 Non-IMS군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작된 개척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요인 1-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은 모델의 심리적 요인과 부합되는데 특히 어머니의 자신감과 얼마나 강하게 모유수유를 시도하였는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IMS와 Non-IMS를 비교해 볼 때 IMS군이 Non-IMS군보다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감과 모유가 충분하다는 느낌이 적은 반면에 모유가 불충분하다는 느낌, 분유를 먹이는 양 및 보충수유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지식정도가 높으면 자신감이 높고 자신감이 높으면 IMS를 덜 호소한다는 Hill과 Aldag(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모유수유기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Gulick, 1982; Whitley, 1978). 따라서 교육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높이고 자신감을 주면 모유수유 조기중단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인 2-사회문화적 요인은 IMS 모델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보의 정도와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어머니나 친구로부터,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군이 IMS를 덜 호소하였다. 이는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모유수유가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한 결과와 동일하다 (Beske & Garvis, 1982; Bryant, 1982; Kaufman & Hall, 1989; Cronenwett & Reinhardt, 1987).

Aberman(1985)은 모유수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것은 서적과 어머니나 자매였고 의사나 간호사 등의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내세워 말한 수유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의료인에게로부터 지지나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산부는 거의 없었다. 이는 또한, 임신중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 63.5%중 89.9%가 대중매체(책포함)에 의하고 의료인은 0.9%였다고 한 박과 권(1991)의 결과와 일치하고 모유수유의 장점 및 방법에 대한 교육자료의 대부분이 대중매체였다고 한 김혜자(1985)의 연구 및 모유수유를 권장한 의료인이 0.7%였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

분한, 1986). 한편, 남편의 모유수유에 대한 강력한 신념 전달이나 지지는 수유커플의 가장 의미있는 상호작용으로 간주되고 이는 산부가 모유수유를 선택하고 이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수반한다.

#### 요인 3-모유수유 행위요인

산부의 정서적 불안 및 긴장, 불행감, 산만으로 인하여 모유분비가 저하되는데 이는 영양문제로 인한 경우보다도 수유실패원인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Gulick, 1982; Wiedenbach, 1958; Bailey, 1972; Ziegel, 1964). 또한, 아기를 모유로 키우겠다는 산부의 신념정도나 태도는 성공적인 모유수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이러한 신념과 태도가 강한 경우에는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조제분유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대상황 때문에 모유수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 (Arafat, 1985; Kearney, 1988).

수유에 대한 자신감이 모유수유에 대한 높은 신념을 가져와 모유분비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에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수유부에서 IMS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은 수유시 문제로 인하여 좌절했던 경험이 수유를 조기에 중단하게 한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 요인 4-수유횟수요인

모유를 장려하는 많은 학자들은 모유분비를 촉진시키려면 수유를 분만후 조기에 그리고 자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Jelliffe & Jelliffe, 1967; Lawrence, 1989; Morse, Harrison & Prowse, 1986; Marmet & Shell, 1984; Shrago, 1990)). 이는 젖을 자주 빨림으로써 유두를 자극하여 혈중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의 분비를 증가시켜 사출반사(let-down reflex) 및 프로락틴 반사가 활성화되면 유즙분비가 잘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분만후 1일 수유횟수와 IMS증후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유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IMS를 호소하지 않았다.

#### 요인 5-사회지지요인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 가치, 권장 및 관심 등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산부의 배우자, 부모, 친구나 친지 혹은 의료인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지지자로서 수유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친정 어머니

와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모유량부족증후군과 관련이 높았다.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나타난 Sweeney(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모유수유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수유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므로 가까운 친지나 남편의 지지가 없을 때에는 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모유수유 조기중단의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Applebaum, 1970 ; 신선숙, 1986).

김 화숙(1991)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지지와 수유방법의 관계에서 남편으로부터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지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지지의 내용, 양, 질과 관계되는 차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겠다.

#### 요인 6-교육정도 및 사전준비 정도

미국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산전진찰 여부와 산부의 높은 교육수준이 장기수유계획 및 장기수유실천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되었다(Feinstein, Berkelhamer, Gruszka, Wong & Carey, 1986 ; Starling, Fergusson, Horwood & Taylor, 1979 ; Wright & Walker, 1983). 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그와는 반대추세에 있다.

대졸 산부 중에서 IMS의 이유로 인공수유를 하는 산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모유수유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전유방관리로 유두 잡아당기기를 시행한 군에서 IMS를 덜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산전유방관리는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는 의지의 강도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어머니들이 산전유방관리를 실천하여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요인 7-신체 및 형제 지지요인

모유수유 동안의 문제로 Non-IMS군에서 젖이 흘러나오는 문제를 더 호소하였다. 이는 유방이 팽만하고 젖이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뽀뽀해서 젖이 충분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Non-IMS군이 경험 있는 언니나 동생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Aberman과 Kirchoff(1985)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서적과 산부의 어머니

또는 언니나 여동생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 요인 8-어머니의 자신감 요인

연구들에 의하면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수유기간과 관련이 있으며(Gulick, 1982 ; Whitley, 1978), 수유과정, 젖의 특성, 수유자세, 수유횟수 및 기간, 사출반사 및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조기모유수유 중단을 예방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인공수유보다 모유수유가 낫다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질수록 IMS는 적게 나타났다.

#### 요인 9-어머니의 신체적, 물리적 요인

조직팽창, 유방 혈액순환 증가, 그리고 생산된 유즙으로 인한 압력 등으로 분만후 3-5일에 유방동통을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울혈이 심하면 아기가 유륜까지 입에 넣기 어려우므로 유두만 빨거나 잘 되지 않으면 보채는 경우가 있다(김 혜숙, 1993). 유방울혈로 인한 불편감은 IMS군에서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 이는 불편감으로 인한 좌절로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사생활(유방노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IMS군에서 많이 호소하였는데, 적절한 물리적 환경이 성공적인 수유를 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모유량 부족증후군은 복합적인 현상으로서 충분히 연구되어지지 않은 영역이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조기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Hill과 Humenick(1989)의 IMS개념적 기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모유량 부족증후(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를 가진 39명의 수유부와 그렇지 않은 52명의 수유부(Non-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와의 사이에 구별되어지는 잠재적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IMS군과 Non-IMS군 사이의 잠재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Discriminant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유의표출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고 자료수집은 서울시내 일개 종합병원에서 1993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였다. 요인

분석결과 어머니의 심리요인(20.04%), 사회문화적 요인(10.11%), 모유수유 행위요인(7.91%), 수유횟수 요인(6.21%), 사회지지요인(5.45%), 교육정도 및 사전 준비 요인(4.86%), 신체 및 형제지지 요인(4.44%), 어머니의 자신감 요인(4.16%), 어머니의 신체적, 물리적 요인(3.94%)으로 변수의 71.12%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Hill과 Humenick(1989)의 IMS개념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IMS모델이 다른 잠재 변수들을 보충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함이 필요로 된다. 또한 IMS에 영향을 주는 과정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하여 조기진단과 조기간호중재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 2. 제언

- 1) 본 연구를 토대로 모유량 부족증후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산부로 하여금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모유실천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유량 부족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 직접요인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유수유교육 및 장려운동을 계획해야 한다.
- 3) 연구가 서울 시내 일개의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다양한 대상자를 연구하여 이 결과와 비교평가할 것을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김분한(1986). 영유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6(1), 59-64.
- 김혜숙(1993). 모유의 신비. 서울 : 에드텍.
- 김혜자(1985). 목포지역 신생아 수유방법과 유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중앙의학, 48(2), 123-128.
- 김화숙(1991).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희(1992). 임신중 유방간호가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2(1), 29-41.
- 박옥희, 권인수(1991). 산후경과별 모유수유실태. 모자간호학회지, 제 1호.
- 신선숙(1986). 영양에 대한 태도와 태도형성에 관련된 요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커영, 이근(1983). 모유실태의 원인. 소아과, 26(6), 527-533.
- 최순옥(1987). 모유수유교육이 그 실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1982). 내원 환아 및 육아상담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조사. 소아과, 25(4), 347-355.
- Aberman, S., & Kirchoff, K.(1985). Infant - feeding practice : Mother's decision making. J. O. G. N. N., 14(5), 394-398.
- Applebaum, R.(1970). The modern management of successful breastfeeding.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7(1), 203-223.
- Arafat(1985). Maternal practice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J.O.G.N.N., 10, 91-95.
- Bailey, R.(1974). Mayes' Midwifery : A text book for midwives(8th ed.). The English Language Book Society.
- Beske, E., & Garvis, M.(1982). Important factors in breastfeeding success.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7, 174-178.
- Bevan, M., Mosley, D., Lobach, K., & Solomano, G.(1984). Factors influencing breastfeeding in an urban WIC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84, 563-567.
- Bloom, K., Goldbloom, R., Robinson, S., & Stevens, F.(1982). II.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ance of breastfeeding. Acta Paediatrica Scandinavica(suppl), 300, 9-14.
- Brogan, B., & Fox, H.(1984). Infant feeding practices of low and middle income families in Nebraska.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84, 560-563.
- Bryant, C.A.(1982). The impact of kin, friend and neighbor networks on infant feeding practic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6, 1757.
- Creery, R.D.G.(1973). Breast Feeding. Br. Med. J., 2, 299.
- Cronenwett, L., & Reinhardt(1987). Support and breastfeeding : A review. Birth, 14, 199-203.
- Dusdieker, L., Booth, B., Seals, B., & Ekwo, E.(1985). Investigation of a model for the initiation of breastfeeding in primigravida wome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

- 695–703.
- Entwisle, D., Doering, S. & Reilly, T.(1982). Socio–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women’s breastfeeding behavior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244–260.
- Feinstein, J., Berkelhamer, J., Gruszka, M. E., Wong, C., & Carey, A.(1986). Factors related to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in an urban population. Pediatrics, 78, 210–215.
- Goodine, L., & Fried, P.(1984). Infant feeding practice: Pre–postnatal factors affecting choice of method and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75, 439–444.
- Gulick, E.(1982).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s breastfeeding. M.C.N., 7, 370–375.
- Gunn, T.(1984). The incidence of breastfeeding and reasons for weaning. New Zealand Medical Journal, 97, 360–363.
- Gussler, J., & Briesemeister, L.(1980). The insufficient milk syndrome : A biocultural explanation. Medical Anthropology, 4(2), 145–174.
- Hawkins, L., Nichols, F., & Tanner, J.(1987). Predictors of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low–income women. Birth, 14,204–209.
- Hewat, R., & Ellis, P.(1984). Breastfeeding as a maternal–child team effort : Women’s perceptio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5, 437–452.
- Hill, P.D.(1987). Effects of education on breastfeeding success. M.C.N., 16, 145–156.
- Hill, P.D.(1988). Maternal attitudes and infant feeding among low–income mothers. Journal of Human Lactation, 4, 7–11.
- Hill, P.D., & Aldag, J.(1991). Potential indicators of 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4, 11–19.
- Holt, G., & Wolkind, S.(1983). Early abandonment of breastfeeding causes and effect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9, 349–355.
- Humenick, S., & Van Steekiste, S.(1983). Early indicators of breastfeeding progress. Issues in Compressive Pediatric Nursing, 6, 205–215.
- Kaufman, K., & Hall, L.(1989). Influences of the social network on choice and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mothers of preterm infa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 149–159.
- Kearney, M.H.(1988). Identifying psychological obstacles to breastfeeding success. J. O. G. N., 17(2), 98–105.
- Jelliffe, D., & Jelliffe, E.(1978). Human milk in the modern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D.(1986). Attitudes of breastfeeding mothers : A survey of 649 moth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3, 1151–1156.
- Lawrence, R.(1989). Breastfeeding : A guide for the medical profession(3rd ed.). St. Louis : Mosby.
- Loughlin, H., Clapp–Channing, N., Gehlbach, S., Pollard, J., & McCutcheon, T.(1985).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 Identifying those at risk. Pediatrics, 75, 508–513.
- Lynch, S. A., Koch, A. M., Hislop, G., & Coldman, A. J.(1986). Evaluating the effect of a breastfeeding consultant on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77, 378–383.
- Marmet, C., & Shell, E.(1984). Training neonates to suck correctly. M.C.N., 9(6), 401–407.
- Martinez, G., & Krieger, F.(1985). 1984 milk feeding patterns in the United States. Pediatrics, 76, 1004–1008.
- Mogan, J.(1986). A study of mothers’ breastfeeding concerns. Birth, 13, 104–108.
- Morse, J., Harrison, M., & Prowse, M.(1986). Minimal breastfeeding. J.O.G.N.N., 15(4), 333–338.
- Page–Goertz (1989). Discharge planning for the breastfeeding dyad. Pediatric Nursing, 15(5), 543–544.
- Quickfall, J.(1979). Can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be extended?. Health Visitor, 52, 223–225.
- Reiff, M., & Essock–Vitals, S.(1985). Hospital influences on early infant feeding practices. Pediatrics, 76, 872–879.

- Sacks, S., Brada, M., Hill, A., Barton, P., & Harland, P.(1976). To breastfeed or not to breastfeed : Survey of primiparae. The Practitioner, 216, 183-191.
- Samuels, S., Margen, S., & Schoen, E.(1985). Incidence and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a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42, 504-510.
- Shepherd, S. C., & Yarrow, R.(1982). Breastfeeding and the working mother. Journal of Nurse-Midwifery, 27(6).
- Shrago, L.(1987). Glucose supplementation of the breastfed infant during the first three days of life. J. Human Lactation, 3(3), 82-86.
- Shrago, L.(1990). The infants contribution to breastfeeding. J. O. G. N. N.
- Slaven, S., & Harvey, D. (1992). Unlimited sucking time improves breastfeeding. The Lancet, Feb., 14, 392-393.
- Starling, J., Fergusson, D., Horwood, L., & Taylor, B.(1979). Breastfeeding success and failure. Australian Pediatric Journal, 15, 271-274.
- Sweeny, M.(1987). The health belief model as an explanation for breastfeeding practices in a Hispanic population. A.N.S., 9(4), 35-50.
- Tully, J., & Dewey, K.(1985). Private fears, global loss :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IMS. Med. Anthro., 9, 226-243.
- Walker, M.(1992). Why aren't more mothers breastfeeding?. Childbirth Instructor, Winter, 19-27.
- Weinstein, L.(1980). Breast milk-A natural resource. A.J.O.G., 136(8), 973-975.
- Wiedenbach, E.(1958). Family centered maternity nursing.
- Whitley, N.(1978). Preparation for breastfeeding : A one year follow-up of 34 nursing mothers. J.O.G.N.N., 13, 44-48.
- Wright, H., & Walker, P.(1983). Prediction of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primipara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37, 89-94.
- Yeung, D., Murray, D., Pennell, M., Leung, M., & Hall, J.(1981). Breastfeeding : Prevalence and influencing factor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72, 323-330.

- Abstract -

### Potential Determinant Factors of 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

Kim, Hea Sook\*\*

In Korea, breastfeeding practice has decreased since 1980's.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insufficient milk supply(IMS) is a major reason found by mothers for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practice. Insufficient milk supply syndrome cannot be explained simply. IMS is a complex phenomenon that has never been adequately investigated in Korea.

Using the modified IMS conceptual framework by Hill and Humenick(1989), a study was conducted at one well baby clinic located in metropolitan hospital. Approval was obtained from head of nursing service and employees in the well baby clinic.

The study sample was to restricted mothers who initiated breastfeeding and still continuously breastfeeding (n=52) and mothers who initiated breastfeeding but terminated at the time of data collection (n=39).

Factor analysis suggested that Potential Determinant factors, maternal psychologic factors were : sociocultural factors, breastfeeding behaviors, breastfeeding frequency, social support, maternal education and prenatal preparation, physical and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Yonsei University.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Maternity Nursing.

sibling support, maternal confidence, and maternal physicals which accounted for 71.12% of the variance.

Using discriminant analysis those potential determinant factors predicted 72.49% of the cases accu-

rately. These findings of research suggest that the modified IMS model is valid. But additional variables which consider Korea sociocultural factors may need to be included in future studies to determine and develop an IMS model for Korea.